

新羅의 典型石塔

黃 壽 永

一、新羅典型石塔의 定立(7世紀後半을 中心으로)

新羅의 石塔은 三國時代에 불교가 初傳된 이후에 建立된 것으로 추정되는 平面方形의 多層樓閣式木塔과 中國博塔을 바탕으로 石材로서 그를 模한 경우 芬皇寺石塔 같은 것이 祖型을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같이하여 韓半島의 西南部에서는 百濟에 의하여 이루어진 木塔系樣式의 石塔이 있는 바 이들 兩系의 石塔은 각기 樣式과 材料를 달리 하면서 國都에 初建되기에 이르렀으나 그 후 얼마아니하여 하나로 綜合되어 신라의 典型石塔을 이루게 된다.

이 芬皇寺塔은 大小의 雜石으로 된 높은 單層基壇을 쌓고 그 基壇中央에는 花崗岩의 長大石 一段을 놓아 塔身部를 받게 하였다. 第一塔身四方에는 各面에 龕室을 開設하고, 그 2枚씩의 石扉左右에는 板石에 仁王像을 陽刻하여 嵌入하였고, 屋蓋上下에 層段을 이루었는데, 塔材의 一部에 花崗石을 使用함은 中國博塔과 다르지만 대체로 安山岩으로 忠實히 博塔을 模倣하였다고 하겠다. 이것은 百濟系의 石塔이 木塔을 模倣하여 花崗岩만으로 石塔을 造成한 것과 다르다.

이 芬皇寺塔에 이어, 義城郡 塔里寺址에서 이루어진 五層石塔은 芬皇寺塔과 달리 花崗岩으로 되었고, 基壇은 그 보다도 더욱 정비되어 單層의 建築基壇을 이루고, 隅柱에는 엔타시스(Entasis)의 手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第一塔身에는 芬皇塔과 달리 오직 南面에만 龕室이 마련되

었는데 그 門扇細部는 木造建築의 양식을 따랐다. 다음으로 이 石塔의 가장 큰 特色은 屋蓋樣式인데, 그것은 數枚의 花崗岩 板石으로서 屋蓋 받침과 그 위의 落水面에 層段의 手法을 使用한 것이다. 芬皇寺塔과 義城塔과의 關係는 마치 百濟의 彌勒寺塔과 扶餘의 定林寺塔과도 비교할 만하다.

그러나 新羅에 있어 純粹한 博塔이란 統一後에 이르러 주로 慶北安東을 中心으로 유행하였으며, 安東에 三基, 漆谷松林寺에 一基 등 四基가 現存한다. 그리하여 韓半島에서는 中國과는 달리 博塔이 크게 發達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것은 博의 生産條件도 없었으니와 오랜 石材使用의 民族傳統을 따랐을 것이다. 이와 같은 樣式의 博塔은 高麗로 繼承되어 驪州 神勒寺에 그 遺例를 남기고 있다.

三國을 統一한 新羅人들은 이 偉業이 佛力에 힘입었다고 믿었으며, 佛敎伽藍의 創建은 바로 國家의 守護와 國民의 敎化와도 합치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와 같은 轉換期를 맞이하여 百濟를 비롯한 高句麗의 遺民들 중에서 많은 技工들도 새로운 活動舞臺를 얻어 新羅의 造形部門에 參與하였을 것이 짐작된다. 이러한 統合의 氣運속에서, 博塔을 模範으로 出發한 新羅石塔이 百濟의 木塔系始源石塔의 樣式을 받아들여 韓國石塔으로서의 獨創的인 典型樣式을 定立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石塔을 먼저 東海岸 月城 感恩寺址 東西三層塔에서 찾을 수 있겠다. 실로 新羅의 韓半島統一은 國土와 民族뿐만 아니라 文化와 藝術造形에서도 融合과 統一을 가져왔다고 하겠는데, 統一初에 이루어진 이 石塔은 다음에 들어 보겠다.

1. 月城 感恩寺址東西三層石塔(國寶 第一二號)

感恩寺의 절터는 慶州 吐含山 너머 大鐘川 어구의 東海의 푸른 바다가 보이는 月城郡 陽北面 龍堂里에 있다. 지금은 東西로 石塔 2基만 서 있다. 三國遺事에는 三國統一의 英主인 文武大王이 「欲鎮倭兵」코저 이

절을 創建하게 되었다고 記錄되어 있다. 大王은 統一의 大業을 이루기는 하였으나, 東海로부터의 海患이 그대로 남아 있어 新羅를 괴롭혔으므로 死後에도 東海의 龍이 되어 護國·護法을 하겠다고 遺言한 聖慮를 받들어 東海의 巖上에 葬事지냈다. 이러한 事實은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 보이며, 俗稱「大王巖」으로 불려져온 이 곳은 일찌기 高裕燮先生에 의해 먼저 注目된 바 있거니와, 一九六七年的 調査에서 실로 오랫동안 다시 大王의 陵寢임이 確認되었다. 또 이 절은 文武王이 設計하고 着工하였으나 完工을 보지 못하고 昇遐하여, 아들 神文王에 의하여 그 即位 다음해인 682년에 完成되었다고 보인다.

이와같이 感恩寺는 新羅의 國防上의 要衝地인 「東海口」에 세워졌으니 이러한 背景을 疏忽히 하여서는 兩塔에 對한 充分한 理解가 아니될 것이다.

이 塔의 構成을 살펴보면, 基壇은 三國期の 石塔基壇이 百濟, 新羅가 區別없이 거의 單層基壇임과는 달리 二層의 建築基壇으로 정비되었고, 基壇밖으로 板石을 둘러 塔區가 있다. 下層基壇은 地臺石과 面石을 같은 돌로 만들어 一·二枚의 石材로서 構成하였으며 甲石 또한 一·二枚로 되었다. 上層基壇은 面石을 一·二枚의 돌로 하고 甲石은 八枚의 돌로 構成하였는데, 撐柱의 數는 上層基壇이 二, 下層基壇이 三으로 되었다. 初層 塔身은 各 隅柱와 面石을 別石으로 세웠으며 二層은 各面에 一石, 三層은 一石으로 되었다. 屋蓋는 屋蓋石과 屋蓋石받침을 別石으로 하고 各各 四枚씩으로 되었는데 屋蓋받침은 各層이 五段이다. 相輪部는 兩塔이 露盤만이 남아있고 높이 3.3m의 鐵製擦竿이 솟아 있을 뿐 다른 部材는 없어졌다.

이처럼 多數의 石材로서 구성된 巨大한 이 石塔에서 2가지 系統의 樣式이 하나로 綜合된 事實을 알아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木塔系인 百濟石塔의 系統을 따른 것이니 塔身을 構成하는 기둥이나 壁石을 끼운 點과 屋蓋의 樣式을 木塔과 같은 方式으로 落水面을 傾斜짓게한 點等이다.

다음은 新羅의 塔塔系樣式에 따라 屋蓋石받침에도 各層마다 모두 五段의 規則的인 層形을 이룬 事實이다.

이리하여 六八二年頃에 이룩된 이 塔에서 古新羅와 百濟에서 각기 系統을 달리하고 發生하였던 石塔樣式이 하나로 綜合되면서, 마침내는 新羅石塔으로서의 새로운 樣式으로 定立하였다고 하겠다. 이러한 새로운 樣式을 가리켜 新羅石塔의 典型樣式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새로운 石塔樣式이 三國統一의 主役인 文武大王이 創建한 感恩寺石塔에서 이루어진 事實은 그 뜻이 깊다고 하겠으며, 威風堂堂한 이 塔들은 統一의 記念塔으로 부를 수가 있을 것이다.

一九五九年 一二月 東西二基의 石塔 中西塔의 解體修理때 第三層塔身上面에서 舍利藏置가 發見되었는데, 이 舍利莊嚴具들은 塔建立當時의 納置된 것으로 統一初의 舍利藏置研究에 貴重한 資料가 되었다.

ㄴ, 慶州 高仙寺 三層石塔

感恩寺와 같은 時期에 建立된 또 하나의 寺院으로 慶州 暗谷洞에 高仙寺의 터가 있다. 高仙寺는 元曉大師의 住刹로 알려져 있거니와 三層石塔一基가 傳해지고 있었는데 政府의 國土開發計劃에 따라 이 곳이 水沒地區로 되어, 現在 石塔은 一九七五年 一二月에 慶州博物館으로 移建되었다. 이 塔은 크거나 자임새에 있어서 感恩寺塔과 거의 비슷하며 二層基壇을 하고 있다. 地臺石과 下層基壇 面石을 같은 돌에 새겨 一·二枚로 構成하고 下層基壇 甲石과 上層基壇 面石은 別石으로 하여 各各 一·二枚로 構成하고 上層基壇 甲石은 八枚로 되었다. 塔身部의 初層屋身은 隅柱와 面石을 別石으로 하여 八枚이고, 二層은 各面 一枚씩 四石이며, 三層은 一石으로 하였다. 屋蓋는 蓋石과 屋蓋받침을 別石으로 하여 各各 4石으로 되고 屋蓋받침의 層段은 各層이 五段이다. 撐柱數는 下層基壇이 三, 上層基壇이 二인 點等은 感恩寺塔과 같다. 다만 다른 것은 初層屋身各面에 卍形이 陽刻된 點인데, 塔身에 卍形을 마련하는 石塔의 例로서는 如古例라 하겠다. 相輪部는 露盤, 覆鉢, 仰花가 남아 있으며, 露盤은 層

段이 없는 立方體이고, 覆鉢은 橫帶를 두르고, 四方에 花紋이 있으며, 仰花는 二段받침위에 四葉形을 장식하였다. 이 탑은 높이에 對하여 地臺石의 넓이가 充分하여 安定感이 많다. 移建할 때 第三塔身 上面에 方形 舍利孔(七寸×九寸 深約七寸)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建立年代는 元曉大師의 入寂이 神文王 六年(六八六)이니, 그의 이 절에 住錫 때는 建立되었을 것으로 보아 그 下限은 神文王 六年으로 두는 것이 建築樣式上으로 보아도 좋을 것 같다.

二、典型樣式定立과 慶州附近 石塔(八世紀를 中心 以)로)

七世紀의 後半이 되면 新羅統一에 따르는 平和와 國力の 充實을 바탕으로 雄壯한 寺刹이 建立됨에 따라 巨大한 石塔이 造成되었다. 이러한 趨勢는 八世紀에까지 繼續되었으나, 石塔의 規模는 차차 작아지고 이에 따라 石材 組立도 簡略化의 手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感恩寺와 高仙寺의 兩塔과 같은 典型樣式의 塔이 定立된 以後에 慶州를 中心으로 建立된 石塔들을 들어보기로 한다.

1、月城郡 羅原里五層石塔(國寶 第三九號)

慶州 附近에서는 드물게 보는 二層基壇의 五層石塔이다. 地臺石, 下臺中石, 甲石은 各各 別石이며 4石으로 되고 中石 各面은 撐柱로 4分되었다. 上臺中石과 甲石도 別石이고 各各 四石으로 構成되니 이 樣式은 以後에 하나의 規範이 되었다. 撐柱數는 上下層基壇이 各 二와 三으로 古式을 따르고 있다. 塔身部는 初層屋身 各面에 一石씩 4枚로 構成하고 二層부터는 一石이며 各各 隅柱形이 새겨져 있다. 屋蓋받침은 各層 五段이고, 屋蓋石은 初層과 二層이 屋石과 받침이 別石이며 三層以上은 一石이다. 初層屋身이 높고, 2層부터는 遞減率이 알맞아 壯重하고 安定된 느낌을 준다. 各部의 均衡에서나 巨大한 규모 등에서 新羅統一初의

가장 優秀한 五層石塔의 하나이다.

1、慶州皇福寺(九黃洞)三層石塔(國寶 第三七號)

이 탑이 서있는 狼山東北쪽 一帶는 옛부터 皇福寺址라고 傳해져와서 이 탑은 皇福寺塔이라고도 부른다. 狼山은 新羅三山의 하나로서 靈적부터 神聖視되었다고 한다. 皇福寺라는 寺名만 보더라도 新羅의 皇室과 因緣 맺은 탑으로 推定할 수 있겠다. 石塔의 構成은 二層基壇위에 三層屋身을 올리고 頂上에 相輪部를 마련한 典型的인 新羅式石塔이다. 下層基壇은 面石과 甲石이 各各 八枚씩으로 짜여졌고 各面에 兩隅柱를 마련하고, 甲石 上面에는 弧形과 角形의 二段과임으로 上基面石을 받고 있다. 上基面石은 八枚石으로 짜였는데 兩隅柱를 模刻하고, 4枚 板石으로 된 上甲石은 下面에 副椽이 있고, 上面에는 角形 二段의 과임대가 마련되었다. 塔身部는 屋身과 屋蓋石이 一石씩이며 各層의 屋身에는 兩隅柱가 정연하고 屋蓋받침은 五段씩이며 上面에는 角形 二段의 과임을 刻出하여 그 윗層의 屋身石을 받게 하였다. 相輪은 破損이甚한 露盤石이 남아 있을 뿐 다른 部材는 남은 것이 없다. 上下基壇의 撐柱數는 上下基壇이 모두 2柱로 축소되었다.

이 탑은 日政末期(一九四二)의 解體修理때에 第2層 屋蓋石에서 舍利 莊嚴具가 發見되었는데 金銅函 두경 뒷면의 銘文으로 孝昭王 元年(六九二)에서 聖德王 5年(七〇六) 사이에 神文王等 金氏王族의 冥福을 빌기 위하여 建立되었음이 밝혀져 新羅塔의 年代設定에 하나의 基準이 되었다. 塔身에서 發見된 舍利莊嚴具로는 舍利 四, 유리金利瓶(破), 金銀盒子 一, 金銅函 一, 純金製如來像 二, 金高杯 二, 銀高杯 二, 各種 玉類, 無垢淨光大陀羅尼經 一 등이 있는데 銅函四面에는 無垢淨光經에 依한 小塔九九基를 새긴 것이 特異하고 如來像 또한 新羅佛 研究에 貴重한 資料가 되고 있다.

이 탑은 基壇部의 撐柱가 지금까지의 三柱에서 二柱로 줄어들고, 屋身도 各面板石이 組立式이 아닌 한돌로 되고, 隅柱도 屋身石에 模刻하는 등

新羅石塔 建築手法의 變遷過程을 보여주고 있는데 七〇〇年 前後에 建
立된 新羅石塔의 名作이라고 할 수 있겠다.

二、月城 獐項里五層石塔(史蹟 第四五號)

吐含山을 넘어서 獐項里에 이르는 東쪽 깊은 溪谷에 자리잡은 高臺위
에 있다. 元來 東西로 雙塔을 이루고 있었는데 東塔은 일찌기 暴風雨로
倒壞되어 溪谷에 放置되어 있던 것을 解放後 收拾하여 現在 西塔의 바로
東쪽 옆에 세워 놓았다. 그렇지만 基壇部는 完全히 없어지고, 塔身部도
塔層屋身만을 찾았고 나머지는 收拾 못하고 初層屋身石 위에 5層까지의
屋蓋石을 쌓아 올렸다. 初層屋身石의 規模나 表面의 莊嚴等으로 미루어
보아 東塔도 西塔과 같은 規模의 石塔으로 推測된다.

兩塔은 慶州 附近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五層石塔의 하나인데, 日帝때
에 補修되어 그 原形을 보이고 있음은 多幸스럽다.

二層의 基壇에 各層의 屋身石과 屋蓋石이 모두가 一石으로 되어 있다.
基壇部의 撐柱數는 上下가 모두 二柱로 되었다. 塔身部는 初層屋身이
兩隅柱와 한가운데에 門扉가 模刻되고 그 左右兩面에 仁王像이 彫刻되었
으나 二層以上の 屋身에는 兩隅柱뿐이다. 屋蓋石받침數는 各層이 五段
씩이고 落水面은 平薄하다. 塔身의 隅柱를 利用하여 神將같은 彫刻을
새긴 것은 아마도 이 塔이 最古의 遺例라 하겠다.

第一塔身에는 舍利를 奉安하는 것이 通例이고 보면 神聖한 遺物을 守
護하는 뜻에서 仁王像을 各面에 새긴 것으로 짐작된다. 相輪部는 露盤
一石뿐이고 다른 部材는 없다.

二、慶州 千軍洞三層石塔(寶物 第一六八號)

慶州에서 東으로 普門貯水池를 지나면 남으로 이 雙塔이 部落앞에서
東西로 마주보고 서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石塔이 屬하고 있던 寺名
은 알 수 없지만 넓은 平地에 經營된 伽藍이며 倒壞되었던 것을 日帝때
(1939) 再建하였는데 그때 寺址를 發掘調査하여 兩塔의 中心線北쪽

에서 金堂址, 講堂으로 보여지는 建物址를 推定할 수가 있었다고 한다.
두 塔 모두 二層基壇 위에 三層의 屋身을 돌렸는데 規模나 手法이 거의
같다. 八石으로 잔 地臺石 위에 또한 八石으로 짜인 中石과 甲石을 얹
었고 中石에 두 隅柱形이 마련되고 甲石上面에는 角形과 孤形의 돌덩
이 있어 上層基壇을 받게 하였다. 上層基壇 中石은 넓은 四枚 板石으로
짜다. 甲石도 四枚로 되어있고 下部에 副椽이 마련되고, 角形 돌덩 二
段이 있다. 基壇部의 撐柱數는 上下가 二·二로 되었다. 塔身部는 屋身
과 屋蓋石이 各各 一石이고, 塔身에는 各層마다 隅柱形이 있으며 屋蓋
石받침은 各層이 五段이다. 東塔의 相輪部는 全部 없어지고, 西塔에서
만 一部 남아 있다. 西塔 相輪은 二段의 層段이 있는 露鉢과 扁球形 中
央에 2條의 橫帶와 四面에 花形이 있는 覆鉢이 있으며 寶輪 二개와 水
煙의 殘缺이 남아 있다. 修理 當時에 兩塔 모두 第三層 屋身의 上部中央
에 一邊 二·四cm, 深 一·五cm의 舍利孔이 있었다고 한다. 釋迦塔과 거의
같은 樣式을 지니고 있는 新羅의 典型樣式을 따른 八世紀 中葉의 佳作
이라 하겠다.

三、慶州 佛國寺三層石塔(釋迦塔)(國寶 第二一號)

東西로 서있는 兩塔 中 西쪽에 있는 塔이다. 一名 釋迦塔 또는 俗傳을
따라 無影塔이라고도 한다. 釋迦塔이라 한 것은 東쪽의 多寶塔과 더불어
法華經의 釋迦如來常住說法이라는 데서 나온 것이며, 無影塔이라 한 것은
이 石塔建立에 따르는 阿斯達과 阿斯女의 傳說에 따른 이름일 것이다.

이 塔은 塔돌레에 蓮華紋을 새긴 둥근 돌이 方形으로 연결되어 塔區
를 이루고 있어서 八方金剛座라고도 傳하고 있는 것이 特色인데, 塔의
淨域을 구별한 것으로 여겨진다. 基壇은 二層을 이루고 上下에서 撐柱各
二柱로써 面石을 알맞게 區分하고 있다. 第一塔身 以上은 塔身과 屋蓋
石을 各一石으로 쌓아 올렸고 屋蓋石받침은 各層이 五段이다. 相輪部는
三層 屋蓋石까지 擦柱孔이 뚫려 擦柱가 뚫혔으며 露盤, 覆鉢, 仰花, 寶
輪 하나가 남아 있었던 것을 一九七三年 修理工事때 相輪部 全部를 復元

했다.

一九六六年九月에 盜掘輩들이 舍利盜取를 企圖하여 塔에 破損을 加하였으므로 解體復元하다 第二層 屋身中央에 마련한 方形舍利孔에서 舍利藏置가 發見되었다.

어느 것이나 新羅時代의 貴重한 舍利寶이지만, 稀貴한 유리製舍利瓶은 千餘年동안 傳來해오다가 破損되었음은 참으로 哀惜한 일이다.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은 楮紙로서 木板으로 印刷된 것인데 經文中에 唐則天武后字 四字가 들어 있다.

이 則天武后字는 대체로 A, D 六九〇~七〇四 사이에 使用된 것으로 미루어, 이 陀羅尼經의 製作年代는 釋迦塔 建立年代인 A, D 七五一年을 下限으로 잡아야 하겠지만, 그보다 앞서는 時期일 것이다. 日本의 百萬塔陀羅尼經(A, D 七七〇) 보다 앞서는 實로 世界最古의 木板印刷文이라 하겠다.

ㄴ, 金陵 葛項寺東西三層石塔(現景福宮)(國寶 第九九號)

元來는 慶北 金陵郡 南西 梧鳳里 葛項寺址에 東西로 서 있던 것을 一九一六年에 서울 景福宮으로 移建하였다. 이 兩塔은 그 規模와 建造手法이 거의 같은데, 現在 西塔은 三層屋身까지만 남아 있다.

基壇部는 二層基壇으로 되어 있고 地臺石과 下層基壇 面石을 一石으로 하고, 下層甲石, 上層基壇 面石, 甲石을 모두 別石으로 하여 여러개의 石材로 構成하였고 撐柱는 上下基壇이 모두 二柱씩이다. 上甲石은 下面에 副椽이 있고 上面 中央에 二段의 角形과인을 彫出하여 그 위의 塔身部를 받고 있다. 塔身部는 屋身과 屋蓋石을 各各 一石으로 하였으며 屋蓋石받침은 各壇이 五段인데, 西塔은 第三層 屋蓋石부터 윗部分이 모두 없어졌다.

東塔 塔身部에서 注目되는 것은 各層의 屋身, 屋蓋에 釘穴이 있어서 塔表面에 다른 裝飾物이 부착되어 있었던 것이 짐작된다. 이것은 아마도 塔外面의 莊嚴을 위하여 浮彫가 있는 金銅板으로서 덮었던 것으로 推測

되니 他塔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다. 東塔에서 特記할 것은 上層基壇面石에 銘記가 陰刻되어 있어서 造塔由來와 建立年代를 알 수 있는바, 塔自體에 銘記를 새긴 新羅塔의 唯一한 例로서 貴重한 뿐만 아니라 銘文中에 吏讀文을 使用한 點에서 더욱 學的價値를 높여주고 있다.

또 原所在地에서 移建할 때 基壇底面에서 舍利藏置가 發見되었다. 東塔에서는 靑銅舍利盒, 金銅製舍利瓶等, 西塔에서는 鍍金靑銅瓶, 銅盒, 紙片 등이 發見되었다.

ㄷ, 月城 遠願寺址西三層石塔(史蹟 第四六號)

慶州에서 佛國寺驛을 지나 毛火驛에서 下車하여 다시 東쪽 山속을 한참 오르면 一段 높은 臺地위에 雙塔이 서있다. 이 雙塔은 約二〇〇年前 墳墓를 설치하려고 破壞되어 흩어져 있던 것을 日帝 때 京都大學의 能勢邊三氏의 盡力으로 復元된 것은 多幸한 일이다. 東西塔의 基壇과 塔身의 彫飾은 같다. 다만 上層基壇의 十二支生肖像의 坐像은 慶州를 中心으로 주로 王陵에 配置한 그것과는 姿勢나 服裝이 다르다. 王陵의 十二支生肖像이 武裝을 하고, 武器를 든 立像인데 대하여, 이 곳에서는 坐形을 하면서 服裝도 平服이며, 그 衣紋도 天衣처럼 머리 위로 表現된 것은 마치 鍾의 紋樣같은 곳에서와 아름다운 天衣의 그것과도 비슷하다. 第一塔身 四面의 四天王立像 또한 발밑에 惡鬼를 밟고 있다. 塔身과 基壇의 앞맞은 比率이나 彫刻의 優秀한 點 등으로 新羅石塔中의 秀作의 하나이다.

寺址는 新羅王都를 지키는 關門山城에서 과히 멀지 않으며, 寺刹의 創建傳說에 金庾信等 三國統一의 主役人物들이 傳하고 있어 護國寺刹의 하나로 짐작된다. 그러나 石塔의 樣式으로 보아 이 塔의 建立年代를 그렇게 올려 볼 수는 없다고 본다.

ㄹ, 月城 遠願寺址東三層石塔

新羅 一般型을 따라서 二層基壇 위에 三層의 塔身이 놓였으며, 兩基

石塔이 서있다. 長壽寺址로 推定되어 왔으나 同寺址는 따로 山中에 있다. 佛國寺의 創建者인 金大城이 佛(熊)을 위하여 建立한 伽藍으로서 그 創建年代가 佛國寺와 同후 한다고 三國遺事에 보인다.

이 塔의 구조는 대략 佛國寺三層石塔(釋迦塔)을 模範으로 한 一般型石塔이다. 그러나 塔身部에서 屋蓋와 받침과의 사이에 短促함이 보인다. 屋蓋石에 있어서도 降棟部는 異常하게 높고 落水面은 勾配가 急하며, 降棟과 中面과의 사이에 自然스러운 이동이 없다. 慶州 明莊里寺址石塔과 거의 같은 時代의 塔으로 보인다.

伽藍은 실사 金大城이 佛國寺를 창건하던 後에 있다 하더라도 塔의 建立은 그보다 後代에 있었을 것이다.

三、新羅後期の石塔(九世紀를 中心으로)

新羅石塔은 위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九世紀에 들면서 차차 地方으로 퍼지게 된다. 그리하여 樣式上으로는 큰 差異를 보이지 않으나 規模는 작아지고 纖弱한 彫法이 두드러지고 한편 基壇이나 塔身에 神將 등 彫刻裝飾이 많아진다.

1、慶州 孝峴洞三層石塔(寶物第六七號)

二層基壇을 한 아담한 一般型石塔의 하나이다. 基壇은 규모가 매우 작아져서 上下 撐柱가 各一柱로 되었다. 下層基壇 四面은 各各一石으로 下臺中石과 地臺石을 구성하고 下臺甲石도 四石으로 구성하였는데 甲石 위에는 角形과 孤形의 돌덩이 있다. 上臺中石은 各面이 別石이고 上臺甲石도 東西로 二枚의 長石으로 되었다. 屋身과 屋蓋石은 各各一石인데 屋蓋받침의 數가 五段에서 四段으로 減된 것도 時代의 降下에 따르는 變換한 形相이다. 塔身에 比하여 屋蓋石이 넓어 安定感이 있다고는 하지만 塔身에 比하여 基壇이 廣大하여 오히려 鈍重한 感이 있고 屋蓋轉角의 反轉이 강하여 심각한 感이 들며, 各部의 구성도 簡略化되어

新羅下代에 이르는 造形作品의 特徵을 따른 것이다. 相輪部는 모두 없어졌다. 이 塔은 東京雜記에 哀公寺塔으로 傳하나 寺址에서는 아무런 遺物도 찾아볼 수 없다. 이 塔의 造營은 九世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1、奉化 西洞里東西三層石塔(寶物第五二號)

春陽中學校 校庭 한 구석에 約一三m의 距離를 두고 서로 마주보고 서 있다. 두 石塔은 같은 規模의 小塔으로 樣式과 크기가 서로 같다. 地臺石과 下臺中石을 一石으로 하여 各面에 一石씩 四石으로 구성하였다. 下臺甲石은 東西로 長石을 二枚 設었고, 上面에는 角形과 孤形의 돌덩이 있다. 上臺中石은 各面을 一石으로, 上臺甲石은 一石이고, 上面에 角形과 半孤形의 돌덩이 있다. 基壇이나 塔身이 모두 縮小됨에 따라 上下基壇의 撐柱가 各一柱로 된 것도 新羅石塔이 그 末期에 이르러 地方으로 分布됨에 따라 나타난 樣式變化라 하겠다. 塔身과 屋蓋는 各一石인데 屋蓋받침의 數가 四段으로 줄어든 것도 또한 略化의 手法이겠다. 屋蓋石은 平薄하고 추너밀은 直線이며 頂上에는 一段의 받침으로 上層屋身을 받게 하였다. 相輪部는 西塔에 露盤이 남아 있을 뿐이고 東塔의 것은 全部 잃고 있다. 이 두 基의 石塔은 基壇部가 埋沒되고 傾斜도 甚하여져 一九六二年 一〇月 解體修理를 하였던바 西塔에서는 第三層身 上面에 一邊三四cm, 깊이六cm의 舍利孔이 있고 그 底面의 中央에 깊이一五cm의 橢圓形 홈이 파져 있었을 뿐이고 舍利藏置는 없었다고 한다. 東塔에는 第一塔身 上面中央에 方形舍利孔(三六、二cm×三五、三cm, 깊이一〇cm)을 마련하고 中央에 綠色 유리製 舍利瓶을 넣은 滑石製 有蓋圓壺를 安置하고 그 둘레에 小形의 供養土塔 九九基를 둘러 있는 舍利藏置가 原形대로 發見되었다. 이 雙塔은 規模가 매우 작아졌으나 新羅石塔의 樣式을 고루 지녔으며, 各部에서 아름다운 比率을 보이는 優作의 하나라고 하겠다. 兩塔은 모두가 相輪을 除外하고는 保存이 良好한 편이다.

ㄱ, 山淸 斷俗寺址東三層石塔(寶物第七二號)

南向한 寺址 東西에 같은 規模와 樣式의 雙塔이 建立되어 있다. 二層 基壇을 갖고 있는 典型的인 三層石塔인데 撐柱數는 下層이 二柱, 上層이 一柱이며 石材의 尺寸도 規律性을 갖고 있다. 下層基壇은 地臺石과 中石을 붙여서 한들로 만들고 各面 一石씩으로 構成하였다. 甲石 上面은 完만한 傾斜를 하였고, 中央에는 弧形과 角形의 돌덩이 있어 上層基壇의 面石을 받게 하였고, 面石은 四面을 各各 一枚 板石을 세워서 結構하였는데 甲石은 一枚 板石으로 밑에 副椽이 있고, 上面은 角形과 圓形이 있어 塔身을 받게 하였다. 屋身, 屋蓋는 各一石이며 二層以上の 各層의 크름다운 曲線을 이루고 轉角에 이르러 輕快한 反轉을 보였는데 側面에 風鈴孔이 남아 있다. 相輪은 露盤, 覆鉢, 仰花만이 남아 있는데 露盤은 二重의 甲石形이 있고, 覆鉢은 扁球形으로 橫帶 二條위에 四方에 花形을 彫刻하는 通式을 따랐고, 仰花는 二段받침위에 八花를 陽刻하였다. 규모의 縮小에도 불구하고 細部樣式에서 新羅統一期의 石塔樣式을 따랐고, 上下가 均整하고 塔身과 基壇의 比率도 알맞는 佳作인데 新羅石塔의 地方分布後의 雙塔의 配置도 注目되는데 造營은 九世紀로 보인다.

ㄴ, 山淸 斷俗寺址西三層石塔(寶物第七三號)

위의 東塔과 樣式, 크기가 같으나 東塔보다 破損이 甚하며 一部 部材도 없어졌다. 二層基壇을 하였고, 地臺石과 下層基壇 中石을 붙여서 各面을 一石으로 構成하였다. 甲石은 곳곳에 破損이 甚하나 上面은 完만한 傾斜를 이루고 二段의 돌덩이 있어 上層基壇 中石을 받게 하였다. 上層基壇 中石은 各面이 一枚 板石으로 兩隅柱도 模刻되었으나 中一面은 一部 面石이 없어져서 積心이 露出되었다. 撐柱數는 下層이 二柱 上層이 一柱이고 甲石 밑에는 副椽이 있다. 塔身은 屋身과 屋蓋石이 各各 一石이고, 屋身에는 層마다 隅柱形을 나타내었으며 屋蓋의 받침은 各層

五段씩이며 추너는 直線이고 落水面도 完만하다가 轉角에서 輕快한 反轉을 보이고 있다. 轉角에는 風鈴孔이 있다. 相輪部는 露盤, 覆鉢, 仰花 등이 남아 있는데 그 手法은 東塔과 같다. 基壇의 結構手法도 整齊되었으나 下層基壇의 幅이 넓어지고 撐柱數도 줄어드는 등 新羅下代의 手法을 보여주고 있다. 新羅의 一般型石塔이 八世紀에서 九世紀에 걸쳐 地方으로 普及되었는데, 이러한 僻地의 精舍들은 新羅佛敎의 傳播와 新羅貴族의 領有와 그 庇護에 따른 願堂으로서의 性格을 짐작케 한다. 이 石塔은 一九六七年 一月 解體補修를 하였는데 初層屋身 上面에 圓形 舍利孔이 確認되었으나 舍利藏置는 이미 盜取되었다고 한다.

ㄷ, 長興 寶林寺三層石塔 二基(國寶 第四四號)

南北으로 마주 서 있는 樣式과 크기가 같은 新羅 一般型三層石塔이다. 모두 규모가 작아졌고 二層基壇의 面石에는 撐柱가 上一柱, 下二柱씩으로 簡略化되는 手法을 보이고 있으며, 平薄한 甲石의 中央에는 塔身을 받기 위한 層段이 새겨져 있다. 塔身部는 屋身과 屋蓋石을 各各 一石으로 하고 屋身에는 兩隅柱가 模刻되었으며 屋蓋받침은 各層이 五段이다. 屋蓋는 추너가 얇은데 轉角에 이르러 落水面에 甚한 反轉이 있다. 相輪部는 兩塔이 모두 完存하여 露盤, 覆鉢, 仰花와 南塔에 三輪, 北塔에 五輪이 있고 그 위에 寶蓋, 寶珠의 石造相輪이 남아 있는 稀貴한 例이다. 이 塔은 一九三三年 盜掘輩들이 舍利를 盜取하려고 倒壞하였던 것을 一九三四年 復原修理할 때 두 塔 모두 初層屋身 中央의 舍利孔에 藏置한 舍利具와 함께 塔誌가 發見되었다. 南塔은 石造塔誌板, 銅盒, 白磁皿等이, 北塔에서는 石造塔誌板一, 石造舍利壺一, 銅盒 등이 發見되었다.

塔誌石에 의하여 新羅 景文王 一〇年(八七〇)에 이 塔을 建立하고 眞聖女王 四年(八九一)에 舍利 七粒을 奉安하였고 朝鮮代에 이르러서는 成宗 九年(一四七八)에 重修하였으며, 世宗 一〇年(一四八四)에 걸쳐 여러 차례의 重修가 있었음을 塔誌의 追記로 알 수 있다. 이 塔은 完全한 形態와 아울러 建立

年代가確實한 作品으로서 新羅下代の 石塔考察에 있어서 하나의 基準 作이 된다.

나. 南原 實相寺東西三層石塔(寶物 第三七號)

中央法堂인 普光殿앞에 마주서 있는 雙塔인데 그 手法과 規模는 거의 같다. 아담한 小型塔이며 二層基壇 위에 三層塔身을 建立하였는데 塔의 둘레에는 넓은 方形의 塔區가 둘러져 있고, 그 中央에 長大石으로 地臺石을 짜서 下層基壇을 받았다. 下層基壇은 下臺石과 中臺石을 한데 붙여서 四枚石으로 짜고 中石 各面에는 兩隅柱가 模刻되었다. 甲石 上面은 傾斜가 急하고 角形과 弧形의 돌덩이 있다. 上層基壇 中石도 四枚로 構成하였고, 基壇 面石에는 撐柱 上一柱, 下二柱가 있으며, 甲石은 平薄하고 밑에는 副椽이 있으며 上面엔 通式을 따라 塔身과 二段이 마련되었다. 塔身部는 屋身과 屋蓋石이 各各 一石으로 各層 屋身에는 隅柱가 模刻되었으며, 屋蓋받침은 四段으로 減少되었다. 相輪部는 露盤과 二段 橫帶와 그 위에 花形이 안배된 扁球形 覆鉢, 八花를 세운 仰花, 花形을 彫刻한 球形에 가까운 竿石을 사이에 끼고, 귀꽃으로 裝飾된 寶輪 四個가 점점 減감되면서 없었고, 그 위에 귀꽃으로 장식된 寶蓋가 놓였다. 이 위에 東塔에는 水煙이 있지만, 西塔의 水煙은 없어졌고 그 위의 擦竿에 寶珠, 龍車가 附혀 있다. 屋蓋石받침數와 撐柱數의 減少, 塔身部에 比하여 基壇部가 커지고 塔身部가 細長하게 보이는 등 時代 降下의 現象을 나타내고 있으나 新羅下代の 優作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實相寺는 洪陟國師가 禪院으로 開基하였다고 하는바, 新羅 興德王 三年(八二八)이 된다. 이곳에는 石塔外에 石燈, 秀澈和尚, 澄覺大師 等の 墓塔과 塔碑가 傳하며, 鐵製如來坐像이 있다. 그리고 一九六七年에는 境內에서 新羅下代の 銅鐘의 下部가 發見되어 東國大學校에 所藏되고 있다.

나. 大邱 桐華寺金堂庵東三層石塔(寶物 第二四八號)

八公山 桐華寺는 新羅의 名刹로서 오늘에 이르러 있다. 極樂殿을 사이에 두고 그 左右에 兩塔이 建立되어 있고 그 규모와 樣式은 같으나, 원래부터 이같이 雙塔이 造成 配置되었는지는 分明치 않다. 基壇은 2層인데 그 大部分이 近年에 보추된 石材이며, 上臺甲石 以上이 원래의 石材이다. 後補된 下層基壇은 地臺石과 下臺石을 各各 一石으로 한개의 石材로서 구성하였다. 中石에는 隅柱와 撐柱가 있어 竹節形으로 되었고 甲石 上面에는 井字形의 돌덩이 있다. 上層基壇 中石은 一石으로 各面에는 兩隅柱와 撐柱 2柱를 模刻하였다.

以上은 後補部分인데 近年에 이르러서의 補修이다. 屋身과 屋蓋石은 各層一石이며 各層 屋身에는 隅柱形이 있고 屋蓋石받침은 各層이 四段이다. 現在 屋蓋石에 달린 風鈴은 後世의 것이다.

相輪部는 大部分 遺存되어 露盤, 覆鉢, 仰花, 寶輪, 寶珠가 남아 있다. 覆鉢은 扁球形이고 仰花는 八花를 彫刻하였으며 寶輪 三개에는 華麗한 八葉蓮花가 있으나, 補修할 때 잘못하여 仰花와 寶輪의 位置를 바꿔 놓았다. 이 塔의 原來部分은 塔身幅과 屋蓋石幅과의 比例나 그 높이의 比例가 均衡이 좋아서 優秀作이라 하겠다.

오. 桐華寺金堂庵西三層石塔

現在 二層基壇인데 周圍에 또 基壇 甲石의 破材가 보이니, 東西塔中 어느 塔의 部材인지 분명치 않다. 上下 基壇은 各面이 撐柱 一柱로써 區分되었으며 모두 平潤한 甲石으로 덮였다. 塔身部는 屋身과 屋蓋石이 各一石으로 屋蓋받침은 各層이 四段이다. 相輪部에는 鐵製 擦柱의 原形이 남아 있으나 相輪은 露盤만이 남아 있다. 一九五七年 解體修理하였을 때 第一層 塔身上面에 舍利孔이 마련되고 供養小塔 九九基를 비롯하여 近世에 장식된 舍利函과 記銘이 發見되었다.

이 東西塔은 結構手法이 거의 같은 塔으로서 약간 高峻한 느낌을 있

으나 各部의 比例가 아름다우며 後世의 補修로 一部 原形의 損傷은 되어 있으나 新羅下代의 石塔을 代表할 수 있는 典型的 樣式을 지닌 石塔이다.

八、大邱 桐華寺毘盧庵三層石塔(寶物 第二四七號)

桐華寺의 西쪽에 따로 있는 한 庵子를 毘盧庵이라고 부르는데 庵名은 法堂안에 奉安한 主尊石像을 따른 것이다.

塔은 土壇위에 建立된 二層基壇을 지녔다. 이 二層基壇은 上下에서 撐柱 一柱로써 兩分되었는데 石材 結構가 整齊하다. 下臺는 地臺石과 中石을 한 돌로 하고 各面에 一枚씩 四石으로 構成하였다. 甲石도 四石으로 덮였으며 上面 中央에 扉印들의 上下에 屈曲을 두어 마치 따로 板石을 끼운 것 같은 形態를 하여 이 塔의 하나의 特異한 形式이며 高麗石 塔에서 初層塔身 밑에 판돌을 끼워 넣는 式과 通하는 바 있다. 上層基壇 中石은 四枚石으로 形成하였고 各面엔 隅柱形을 표현하였으며 甲石은 二枚板石으로 되었다. 屋身이나 屋蓋石은 各各 一石씩이며 屋蓋石받침은 各層 四段이다.

相輪部는 露盤、覆鉢、寶珠가 殘存하며 覆鉢에는 橫帶와 四花가 있고 寶珠에는 蓮瓣을 陽刻하였다. 基壇과 塔身의 크기가 調和되었으며 彫法 또한 溫和하여 優作이라 하겠다. 이 塔은 最近 舍利가 盜難되었으며 이어서 一九六七年엔 解體修理되었던 바 初層塔身 上面에 舍利孔이 마련되고 金銅盒을 安置하여 舍利를 藏置하였던 듯 하나 攪亂되어 金銅盒의 底部와 木造 金箔의 小塔 三基外에 紅色絹布가 남아 있을 뿐 모두 盜失된 듯하다.

특히 舍利函을 固定 시키기 위하여 舍利孔과의 사이틈에 송진을 부은 形式은 새로운 藏置方法이다.

그 後에 回收된 舍利石壺의 銘文에 의하여 新羅 景文王 四年에 閔哀大王의 祈福을 위하여 建立된 事實이 밝혀졌다.

이로써 建立年代가 確實한 新羅의 또 하나의 石塔을 알 수 있게 된 것

은 그 研究를 위해 多幸한 일이다. 젊은 나이로 悲運에 간 國王을 위하여 八公山 桐華寺에 따로 設立된 그의 願堂이 塔像과 더불어 오늘에 傳來하는데, 이같은 新羅下代에 세워진 大小寺庵은 王室이나 貴族의 發願이 있음을 알 수도 있겠다.

九、求禮 華嚴寺東五層石塔(寶物 第一三三號)

大雄殿 앞마당 東西에 雙塔을 이루고 있는데, 西塔이 各部에 彫飾이 있음에 反하여 이 塔에는 아무런 裝飾이 없고, 또 西塔이 二層基壇인데 對하여 東塔은 單層基壇임이 다르다. 地臺石은 數枚의 石材로 되었고, 그 위에 五枚의 長石으로 된 下臺石이 놓이며, 隅柱와 撐柱가 模刻된 數枚의 板石으로 中石을 삼았다. 中石에는 撐柱 一柱가 있고, 위의 甲石은 四枚石으로 되고 밑에 副椽이 있으며, 上面의 中央에 一段의 角形받침이 마련되었다.

塔身部는 屋蓋石과 屋身이 各各 一石으로 初層屋身은 높이에 比하여 넓어 重厚한 느낌을 준다. 二層以上の 減縮率은 크고 屋蓋받침은 各層이 四段이다.

相輪部는 上部에 二層段이 있는 露盤과 그 위에 半球型的 覆鉢 및 寶珠形 石材가 竿柱위에 놓여졌다.

新羅의 石塔은 이와 같이 年代가 九世紀 후반에 이르러면 略化의 方法을 보이게 되며, 彫法과 結構에도 變化와 形式化가 나타나게 된다.

十、求禮 華嚴寺西五層石塔(寶物 第一三三號)

華嚴寺는 들메에 높은 石段과 石階가 있어 佛國寺를 연상케 한다. 이 塔은 方形五層을 이루고, 基壇은 二層인데, 基壇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塔身이 더욱 細長한 모습을 하여 新羅下代 石塔의 特色을 보이고 있다.

構造를 보면 下層基壇은 數枚石으로 地臺石을 마련하고 下臺石과 中臺石을 한 돌로 붙여서 만들고 各面의 眼象안에는 一二支神像을 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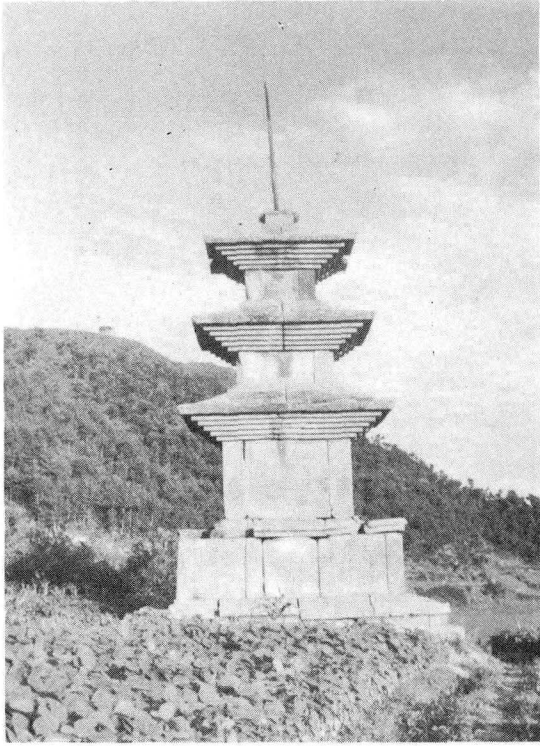


圖1) 感恩寺址 三層石塔



圖2) 高仙寺址 三層石塔



圖3) 月城羅原里 五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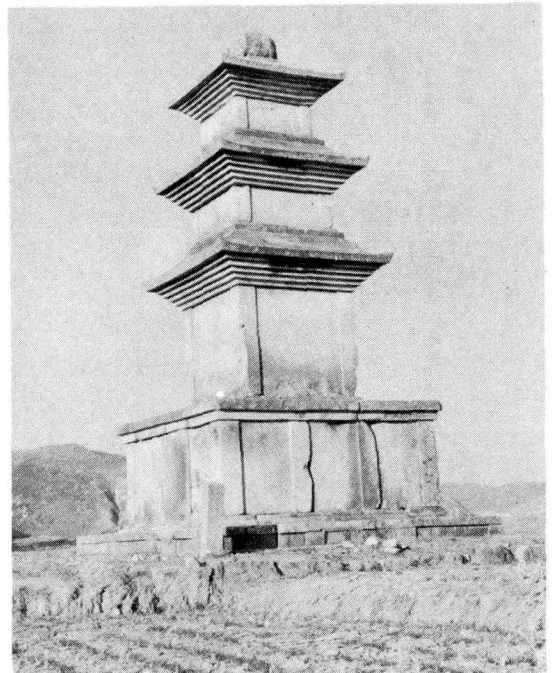


圖4) 慶州九黃里 三層石塔



圖5) 月城獐項里 五層石塔



圖6) 慶州千軍里 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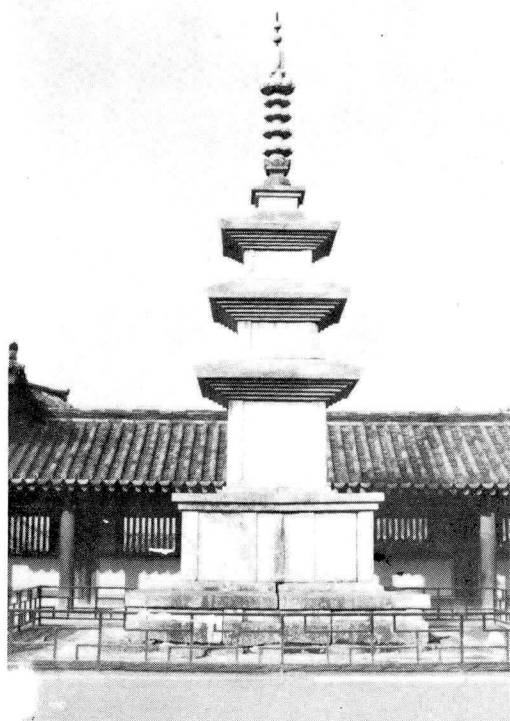


圖7) 佛國寺 三層石塔



圖8) 葛項里寺址 三層石塔



圖 9) 慶州遠願寺址 三層石塔



圖 10) 昌寧述亭里 東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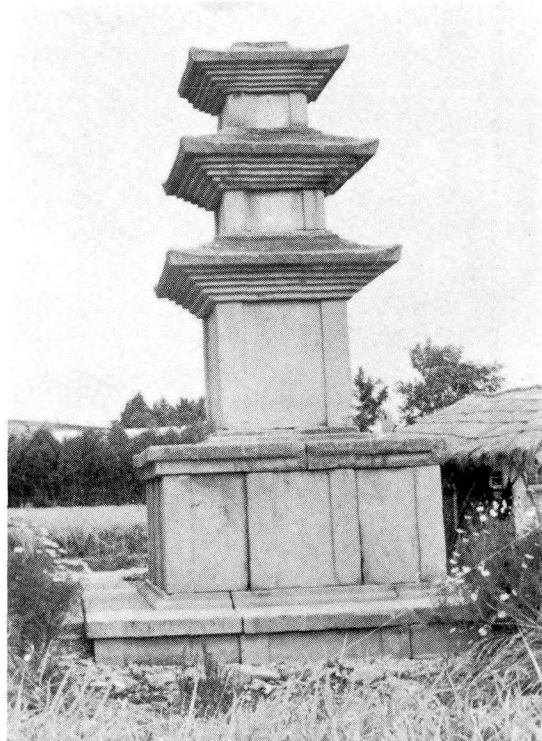


圖 11) 清道鳳岐洞 三層石塔



圖 12) 慶州馬洞 三層石塔



圖 13) 慶州孝峴里 三層石塔



圖 14) 奉化西洞里 三層石塔



圖 15) 斷俗寺址 東·西 三層石塔



圖 16) 宝林寺 三層石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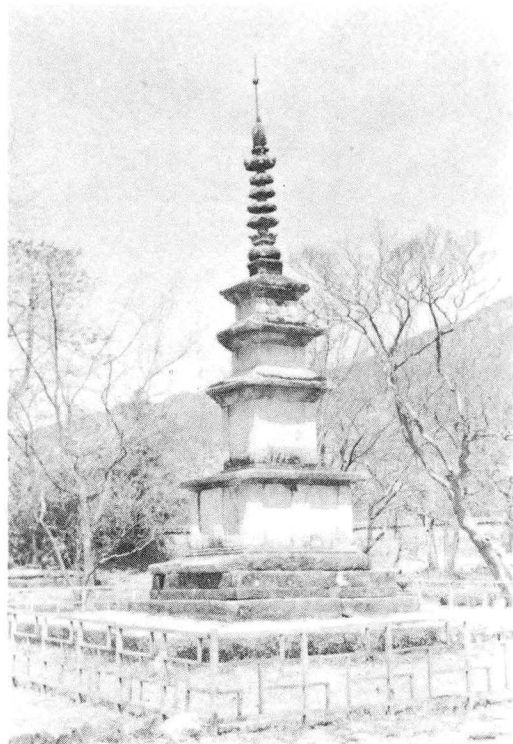


圖 17) 實相寺 三層石塔



圖 18) 桐華寺 金堂庵 東 三層石塔



圖 19) 桐華寺 金堂庵 西 三層石塔



圖 20) 桐華寺 毘盧庵 三層石塔



圖 21) 華嚴寺 東 五層石塔



圖 22) 華嚴寺 西 三層石塔



圖 23) 聖住寺址 五層石塔



圖 24) 聖住寺址 東 三層石塔

方向에 따라 彫刻하였다. 甲石은 四枚石으로 덮고 上面엔 角形과 弧形의 물딩이 있어 上層基壇을 받고 있다. 上層基壇 中石은 四枚로 되고 各面엔 兩隅柱와 撐柱 一枚로 二區分하고, 各區에 八部神衆 立像을 一驅씩 彫刻하였다. 甲石은 二枚石인데 밑에는 副椽이 있다. 塔身部는 屋身과 屋蓋石이 各各 一石으로 初層屋身 四面에는 四天王立像을 陽刻하였고 屋蓋石받침은 五段이다. 相輪部는 위에 二層段이 있는 露盤위에 寶珠가 얹혀 있다.

이처럼 基壇部에서 塔身部에 이르기까지 莊嚴을 한 예는 그렇게 많지 않으며 特히 十二支像을 石塔에 配置하는 예는 不過 몇基에 지나지 않는다.

㉔、保寧 聖住寺址 五層石塔(寶物 第一九號)

聖住寺는 新羅末 朗慧和尚 無染이 創建한 禪院으로 그 前身은 百濟의 烏舍寺로 推定된다. 이 塔의 西쪽에 二基의 三層石塔도 있다. 이 石塔은 層級의 差는 있으나 다른 二塔과 造型手法이 같다. 二層基壇을 지니고 넓은 地臺石 위에 下臺石을 놓고 그 위에 中臺石을 얹었는데 그 中 一面은 損傷을 입었다. 撐柱는 上下基壇이 各 一柱씩이며 甲石은 四枚板石이고 비교적 좁은 편인데 밑에 副椽이 있다. 塔身部는 屋身과 屋蓋石이 各各 一石으로 初層屋身 밑에는 소로形으로 생겼고, 上面에 물딩이 있는 別石을 끼워 特色있는 樣式을 하고 있다. 屋身에는 隅柱形이 있을 뿐이고 屋蓋石은 좁은 편으로 屋蓋받침은 各層이 四段이고 추녀 밑은 거의 水平을 이루다가 隅角에서 가변은 反曲을 그린다. 相輪部는 露盤 一石이 남아 있을 뿐 다른 部材는 없어졌다.

이 塔의 造成年代는 朗慧和尚의 在世가 九世紀의 後半期이니 塔도 그 때 造成된 것으로 推定되며, 이 塔의 樣式中 高麗塔의 特徵도 나타나고 있어서 樣式上으로도 그렇게 보는 것이 無理가 없을 것 같다.

㉕、保寧 聖住寺址 西三層石塔(寶物 第四七號)

넓은 寺址에는 石碑、龜趺等 많은 石造遺物들이 있다. 三基의 三層石

塔이 聖住寺 金堂址 後面에 一列로 나란히 있어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配置를 이루고 있다. 이 塔은 그 中에서 西쪽에 있는데 通式의 二層基壇위에 세워졌다. 그러나 時代가 내려옴에 따라 塔形이 縮小되면서 撐柱數는 上下層基壇에서 各 一柱씩으로 되었다. 地臺石은 몇장의 長臺石으로 構成하고, 上面에 弧形을 中心으로 그 上下에 角形을 안배한 三層과임이 있어 下臺石을 받게 한 것은 하나의 特徵이다. 下臺石은 四枚의 長板石으로 되었고 中石은 各面에 兩隅柱와 撐柱가 있다. 上層基壇 中石도 八枚板石으로 되었는데 各面에 隅柱와 撐柱가 있으며 甲石은 밑에 副椽이 마련되었다. 塔身部는 屋身、屋蓋가 各各 一石으로 되고, 初層屋身에는 南向한 一面에 門扇形의 윤곽이 새겨져 있고, 門扉와 열쇠그리고 그 밑에 獸環 一雙을 模刻하고 左右로 같은 간격으로 三個式 五列의 못머리모양(釘頭形)이 있어 注目된다. 屋蓋받침은 各層 四段이며 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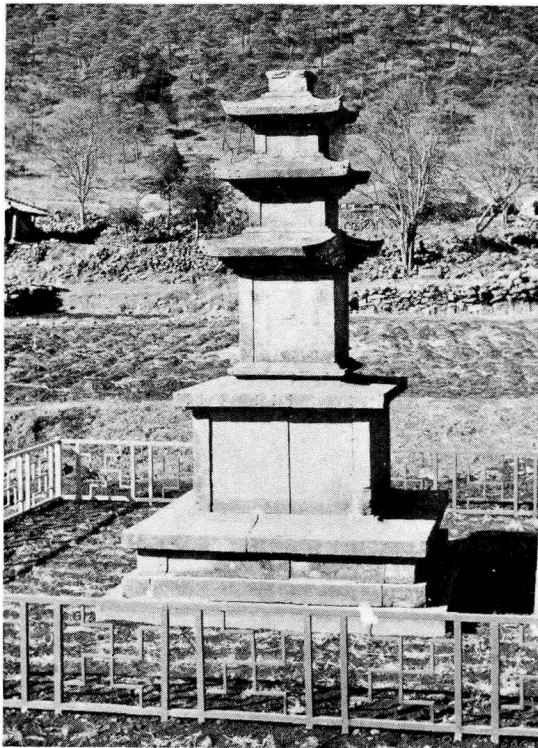


圖 25) 聖住寺址 西三層石塔

水面은 傾斜가 완만하다. 相輪部에는 通式的 露盤 一石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塔은 新羅石塔의 基本樣式을 따르고 있으나 塔身 밑에 別石끼어 넣기, 短促해진 屋蓋石의 추너幅等 九世紀塔의 特徵도 나타나 있는 新羅末期의 石塔이다.

結 言

新羅의 石塔은 비록 七世紀 前半 芬皇寺塔에서 그 祖型을 오늘에 남기는 하였으나 그것은 塼塔의 形式을 따르는 것이며 安山岩을 塼形으로 切斷하여 使用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塔은 石塔으로서 古新羅 末期에 신라가 이룩한 최초의 造形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거의 때를 같이 하여 韓半島의 西部인 百濟領土에서 이룩된 石塔과는 그 樣式系가 判異하며 또 이곳에서도 花崗岩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에서도 뚜렷한 差別을 볼 수가 있다. 그러므로 七世紀 前半에 이르러 東西의 兩國이 모두 木塔에서 石塔創立의 契機를 맞았으나 자기 佛教文化의 系統 또는 國別에 따르는 造塔의 與件이나 技術의 相異에서 樣式이 各別한 始源石塔을 자기 國都에 建立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寺塔甚多」의 나라로 알려져 남달리 建築術이 發達하였던 百濟國土에 있어서 는 그 以前에 流行하였던 木塔樣式을 石材로 翻案하므로서 오늘에 전래하는 扶餘塔과 益山塔을 자기 建立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라는 中國에서 流行하였던 方形塼塔의 知見에 따라 模塼石塔을 建立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塼塔에 대한 新羅의 關心은 그 後에도 계속되어서 安東등지를 中心으로 삼아 塼塔이 만들어지고 또 一般 方形多層石塔의 一變型으로서 模塼石塔의 作品을 남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新羅의 始源石塔이 얼마아니되어서 重大한 變型의 契機를 맞아 새로운 新羅石塔으로서의 典型石塔樣式이 定立되는 사실을 주목하여야겠다. 그것은 典型石塔樣式이 成立되는 契機는 三國統一이 新羅에 의하여 完遂된 直後인 七世紀後半에 있었다. 이같은 重大한 歷史

的 契機를 맞아 新羅石塔은 새로운 樣式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리하여 그에 앞서 上記와 같이 古新羅와 百濟에서 자기 發生하였던 兩系의 石塔樣式이 마침내 하나로 綜合되므로써 統一新羅石塔 아니 新羅石塔으로서의 樣式을 얻게 되었다. 그 細部の 樣式에 있어서는 二重의 建築基壇을 整備하였으며 塔身部에 있어서는 隅柱를 세워 木塔의 그것을 따랐다. 또 屋蓋에 있어서는 五段의 層級形받침手法을 지니므로써 塼塔樣式을 따랐으며 그 上面에 있어서는 이와달리 層級없는 落水面을 이루 어 다시 木塔의 그것을 모디파이하였다. 그리하여 이같은 統一初의 典型石塔이 경주를 中心으로 혹은 東海口의 感恩寺 東西三層石塔 또는 高仙寺三層石塔에서 이루어졌다.

그 後 八世紀에 들어서서 國都를 中心으로 그 隣近에 普及하였던 規模의 縮小에 따르는 構成石材의 減數를 가져왔으나 아직도 塔身의 主體的인 比重을 잃지 않고 있다. 그러나 九世紀에 들어서서 規模는 더욱 작아지면서 石材構成의 簡略化가 이루어지는 한편 기단이나 塔身에 裝飾化의 傾向이 많아졌다. 그리하여 石塔은 美化하여 갔고 纖弱으로 흘러갔다. 規模의 縮小는 上下基壇의 中石을 等分하는 撐柱數가 減少되는 傾向에서 알 수도 있다.

그러나 신라石塔의 典型樣式은 신라말에 이르기까지 그 基本形과 細部양식을 꾸준히 계승하였으며, 한편 八세기 中葉부터는 異型石塔이 발 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라石塔의 主流로서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켜나 가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國土 여러곳에 당대의 많은 名塔을 남김으로서 신라石造美術의 眞面目을 전하여 주었다.